

제 2 장

교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사 28:9-10).

하늘에서 맡기신 임무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라고 하는 하늘에서 맡긴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부과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임무(마 28:19-20)를 부여하시면서, 주님께서서는 여러분들이 주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한 것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제자를 삼으라”(μαθητεύω, 마테튜오)는 것입니다. 저는 주께서 유앙겔리조(εὐαγγελίζω, “복음을 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면 어떠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의 신앙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상의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마테튜오라는 헬라이어 단어는 전체 삶을 내포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낚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테에게 부여했던 막중한 책임이었으며, 디모테는 이제 다시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테에게 보낸 첫번째 편지의 마지막 어귀에서 자기의 동역자인 아들에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디모테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피하라.” “네게 부탁한 것”이라는 구절은 하나의 헬라이어 단어(파라테케 *παράθηκη*)를 번역한 것입니다. 파라테케는 맡겨진 것, 누군가를 믿고서 그에게 맡긴 진리의 예탁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디아테케(*διαθήκη*)는 유언, 언약, 누군가가 죽기 직전에 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의 유언이자 언약-디아테케(*διαθήκη*)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명백하고, 생명력이 있으며, 실천가능한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잘못되고 나쁜 생각들을 뿌리쳐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는 파라테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관하라고 주셨던 예탁물인 것입니다.

그 단어는 디모테후서 2장에서 다시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파라테케)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진리라고 하는 예탁물은 사라져 가는 것도,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운처럼 희뿌연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변하는 구름의 모습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위 위를 지나간 뱀의 자취처럼 흔적이 없거나 창공

을 날아간 독수리의 자국처럼 자취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고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성경의 말씀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라데케요, 진리라고 하는 예탁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의 교훈이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라고 하는 예탁물은 바울이 하는 말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주어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다른 이들을 가르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교육적인 목회의 책임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교육 목회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젊은 소년이 식인종이 되게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뺨장다리를 하고 걷는 파시스트나,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공산주의자나, 또는 마호메트교도가 되도록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건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주께서 당신의 성경책의 갈피 갈피마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교훈(교리)이 되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법

우리가 우리의 본문을 들여다 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배울 때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즉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로 배워 나갑니다.

우리는 음악을 그런 식으로 배웁니다. 기초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해가고 마침내 전체적인 음악의 구성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적분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단한 산수에서 출발해서 그 모든 기하학적인 명제들을 덧붙이고, 한 가지 명제 위에 다음 명제를 성립시키고, 그 위에 다음 것을 첨가해서 마침내 우리는 미적

분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나, 화학에서나, 모든 학문 분야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러한 반복적인 방법으로 배우며, 마침내는 진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 놀라웁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분께서는 단지 완전한 지식을 우리의 머리 속에 집어넣으시기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갑자기 진리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고 진리를 간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의 전체 테두리와 영역을 충분히 인식하게 될 수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그 일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조그만 경계, 조그만 교훈, 그리고 조금 덧붙이시는 식으로, 우리라면 귀찮다고 할만큼 사소한 것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꼼꼼한 작업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1:3과 6절에서는 굉장한 힘을 지닌 단어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영이 브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하시니라” 저는 이러한 강한 영을 부여하시는 것은, 엄청나고 지축을 뒤흔드는 정복이라든지, 가장 높으신 하늘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어떤 크고도 막중한 임무를 감당케 하시려는 것이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말들을 삼입한 것에 근거해서 상상했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스럽고 강력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이 브사렐과 오홀리압에게 무슨 일을 준비시키는지 하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성령이 브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막대기와 휘장과 말뚝과 삽 등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들, 그렇게 세밀하고 사소한 것들, 그것

을 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브사렐과 오홀리압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을 돌려 자연 속에 펼쳐진 또다른 하나님의 책을 바라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직도 자연의 세계 속에서 매일 매일 같은 일을 해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소한 것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나비의 날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것처럼 하찮은 사소한 것에까지 미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까! 한번은 어떤 분이 제게 소리치며, “이리 와 보세요, 이 현미경 속을 들여다 보시라구요” 하더군요. 저는 그 현미경을 통해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나비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색이 아름답고 부드러웠으며, 전체적인 통일이 있었습니다. 나비의 날개를 들여다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하더니, 물감으로 칠한 물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만, 사람들이 만든 물감 채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현미경 밑에 놓더니, “이젠 그것을 보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미경 속을 들여다 보았는데, 제가 본 것은 거칠 거칠하고 얼룩과 점과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끔찍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께서 나비의 날개의 사소한 부분을 꾸미시느라고 시간을 들이시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적은 일을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눈송이를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생긴 눈송이란 없는 것입니다. 눈송이 하나 하나가 놀라울 정도로 기하학적인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밀한 것까지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종종 저는 산책을 할 때면, 씨앗에서 자라나는 작은 꽃을 보려고 해봅니다. 멈추어 서서 그것을 꺾어들고는 들여다 봅니다. 그렇게 보잘 것 없는 풀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숨씨가 있음을 보게되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솜씨는 전부가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여기서 마땅히 배워야 할 바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저는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 직접 배워야만 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될까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은혜의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로 사소한 것들, 작은 조각이나 부스러기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원리를 힘차고도 감동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은 제가 영국 박물관에 갔었는데 특히 고대 그리이스의 대리석 조각 상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려고 했던 이유는 전에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이스의 천재가 만든 웅장한 작품들 가운데 하나를 보려고 아테네에 다녀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전의 기둥들 위로 삼각형 모양의 지붕 장식은 한 때는 당대의 조각가 피디아스가 조각해서 만들었던 아름다운 조각 무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엘진 경(Lord Elgin)이 그리이스를 정복했을 때, 그가 그 조각 무늬를 런던의 영국 박물관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이스 역사를 읽으면서, 저는 피디아스가 그 대리석들 위에 아주 정교하게 조각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높은 곳에 놓여질 조각품의 뒷면까지도 - 머리결의 나부낌이나 아름다운 옷자락들을 세심하게 조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 보았다고 합니다. “피디아스여, 왜 이 조각품의 뒷면에 까지 그 정성을 들이고 세밀한 묘사를 하시오? 그것들은 아무도 그것들을 보지 못할 높은 곳에 놓을 것 아니오?” 그러자 피디아스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뒷면을 앞면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아름

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엘진의 대리석이라고 불리는 그 조각품을 보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저는 영국 박물관에 갔을 때, 그것의 뒷면을 살펴보고는, 뒷면이나 앞면이나 똑같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함을 지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라는 조각품을 보기 위해서 플로렌스의 미술 박물관을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앙 통로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그것은 고금을 통해서 거대하고 엄청난 조각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즉,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완성했다고 생각한 후에도, 그는 몇 달이고 몇 달이고 그 작품을 손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고치고, 한 지점의 표현을 바꿔보고, 다른 쪽 근육의 선을 변경하고 하면서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러한 사소한 변경을 가하려고 세밀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게 물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야기를 걸던 그 사람은 큰소리를 쳤습니다. “미켈란젤로씨, 그런 것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바로 그 때 그 위대한 예술가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그것들은 사소한 것들이지요. 그렇지만 사소한 것들 때문에 완벽해 지는 것이고 완벽함이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배우려는 의욕을 가지고 복종하는 순종심과 인내를 가진다면 하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다 이것을 더하고 저것에다 저것을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아테네의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루스 학파의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보인 반응을 보면 어쩐지 웃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행 17장 참조). 사도 바울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도시 중앙

아래의 광장 혹은 시장거리라고도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설교도 하였습니다. 그에 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는 “이 말장이(스페로말로그스, *σπερμαλόγος*)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영어로는 말장이는 “씨앗 चु는 이”(seed-picker)라는 뜻인데, 사소한 일을 다루는 데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가정법 문장인데, “만약 그가 무언가 말할 것이 있다면, 이 말장이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 세대 중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이 국가 생활이나 시민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모인 전체 그리스도교인들은 모든 생활의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대답한단 말야.”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날카로운 비판이겠지만, 저의 소박한 신념으로는, 사실상 그 간단한 대답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명하고, 간단한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대신에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없이 우회적이고 왜곡된 방식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역시 간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십계명보다 더 간단하고 쉽게 이해되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은 “열 가지의 위대한 말씀들”이라고 불리웁니다.

또는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을 때 그의 놀라운 대답을 생각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은 이것보다 더 간단하고 명쾌하게 서술된 대답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단순하고 분명해서 어린아이들이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은 「사막에서의 죽음」이라는 제

목으로 놀라운 시를 한편 썼습니다. 물론, 그 시는 상상으로 지은 것이지만, 그는 자기의 상상력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성사도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마음으로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일이,
이승에서와 저승에서나 당신의 모든 문제를 풀고,
당신을 그토록 현명케 하였군요.

자,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른다면, 우리 주 예수의 말씀과 그 뜻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놓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나 장차 올 세상에서 해결치 못하실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방법도 그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주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생각하고 부분을 바라봄

해석학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내용을 그분의 축복된 책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사용되어야 할 중요한 해석학의 몇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은혜의 책을 연구하려면, 우리들은 그것이 한 권의 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록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부분들이나 단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놀라운

목적에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에 있어서 첫째 원칙은, 우리가 부분을 해석할 때는 전체의 성경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구절이나 한 단락 또는 한 부분만을 택해서 그러한 구절이나 단락에 근거한, 교훈이 되는 진리를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전체의 책을 생각하고 성경의 목적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가령,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점진적인 계시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능력에 맞추어 당신의 진리를 더해 가십니다. 예를들면, 구약 성경의 성도는 신약 성경의 성도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다윗의 첩이나 솔로몬의 후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면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 솔로몬이 칠백명의 아내와 삼천명의 후궁을 거느린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그 분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시진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해지면서, 사람들의 책임은 더욱 성결해지고 커졌던 것입니다.

문맥을 생각함

또 다른 해석학의 원리는 우리는 언제나 그 구절을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구절의 앞뒤에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 구절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누구에게 대해서 쓴 것일까? 그가 말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한 문장만을 문맥에서 따로 떼어 보아서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죄가 씻겨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하나의 독립된 문장을 전체 하나님의 계시라는 틀 속에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순이 없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말씀도 아름답고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주석이라는 문제가 또한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성경을 배우는 학생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지식은 그 학생이 한 구절을 단어 하나 하나 공부하고 그 의미를 알아내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원저자의 글들이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는 일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원저자의 글을 더듬어 올라가면서 그 원저자의 글에 적힌 말씀이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때 나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영감받은 예언자나, 영감받은 사도가 기록한 것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여하신 그 정확한 말씀을 얻게 된다고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최초의 원고 속에 옳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어떠한 확신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로 쓰여진 원래의 말씀의 무오류성을 믿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으신 정확한 말씀으로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배울 것을 부탁하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와서, 자신의 발아래 앉아, 그 분의 학교에 등록을 하고, 그 분에 대해서 배우라고 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와서 배우라고 요청하십니다.

역사상 가장 현명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주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잠 4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심만 있다면, 우리들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해가며 배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 하며 애타게 찾는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아름다운 관을 우리 머리에 들 것이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와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이들 모두에게 아름다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3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생명에 이르는 길, 하늘 나라에 가는 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리와 가르침과 그의 계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초청을 마태복음 11:28-30에서 보십시오. “내게로 오라...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을 메고”라는 말은 옛날 탈무드나 랍비들이 쓰던 구절로 “내 학파에 입학하라”는 뜻이며, “내게 배우라”는 것은 내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분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묘사한 문장들의 문맥을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신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주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초청을 널리 베푸시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예수를 알고 그 분을 나의 선생으로, 나의 주로, 나의 인도자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 땅에서의 삶과 다가올 세상에서의 삶을 이해하는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는 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사야는 우리 주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길이니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라. 나의 학교에 입학하여라. 내게 직접 배워라. 나에게 대해서 배워라. 그러면 영생을 약속으로 얻으리라.” 이것은 모든 인간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며, 이것이 하늘로 통하는 문인 것입니다.